

『東醫寶鑑』의 辨證體制에 대한 考察<sup>1)</sup>

朴贊國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 1. 序 論

『東醫寶鑑』에 대한 연구가 간간히 행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래 『東醫寶鑑』이 許浚선생의 뚜렷한 思想이나 학설을 바탕으로 하여 쓰여지지 않고 역대의 많은 서적을 참고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그 실마리를 잡기가 어려웠던 것이 한 원인이라 생각한다.

論者도 역시 이와같은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여 본다면 바로 이러한 점이 『東醫寶鑑』의 특징이요 장점이라 할 것이다. 즉 『東醫寶鑑』은 陰陽五行이라는 원만함을 그 바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고 먼저 證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內經』이래로 辨證이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東醫寶鑑』은 이러한 역대의 辨證思想을 어떻게 수용하였나를 살펴보았다.

## 2. 證의 定義

『東醫寶鑑』의 辨證體系를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證의 定義를 알아보고 나아가 辨證의 意義를 생각하여 본 후에 『東醫寶鑑』에서의 辨證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사람에게 질병이 발생되면 반드시 症이 발생한다. 그러면 치료에 있어서는 이 症에 의거하여 辨證을 하여 施治를 한다. 이를 바로 辨證論治라 하는데, 그러면 이 證과 症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가? 證과 症은 그 음도 같으므로 그 의미도 相似하나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症이라하면 바로 人體에 병이 발생하였음을 나타내주는 증거이다. 즉 몸에 열이 나거나 頭痛이 있거나 惡寒이 있거나 脈이 浮數하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症으로 몸안에 병이 있음을 證據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이 症을 가지고는 병을 만족스럽게 치료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證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症이란 病으로 평소에 없던 人體의 현상을 말한다면, 證이란 병이 든 人體에서 관찰하는 것이긴 하지만 본래 人體의 生理를 영위하던 고유

1) 제5회 월례연구모임때 발표된 내용임  
(1993. 3. 25)

機能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에게 頭痛、惡寒、脈浮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이들의 질병은 어디까지나 邪氣가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邪氣가 들어와 작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은 人體의 正氣가 허약해졌기 때문인데, 이 正氣의 상태를 證이라 한다.

그러므로 辨證이라 하면 邪氣를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邪氣보다는 人體의 機能에 어떠한 문제가 있나를 찾아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서양의학은 어떤 병이 발생하면 人體의 正氣의 상태를 고려하기보다는 病因 즉 邪氣 자체에 지나치게 역점을 둔 나머지 病을 치료하고서 도리어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없지 않은가?

곧 우리의 辨證施治란 어떠한 事故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아 그 해결과 보상을 구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스스로 자신에게서 찾아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만 하다면 事故가 완전히 해결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부작용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辨證을 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人體의 구성 자체가 간단하지 않고 또 그 機能 또한 다양하며, 또한 사람이 살고 있는 天地의 간도 복잡한 변화를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東醫寶鑑』은 그 要諦를 어떻게 잡아 辨證을 하여 施治하였나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篇制와 구성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3. 『東醫寶鑑』의 篇制와 思想

모든 物은 반드시 自我가 있으면 自我는 自我이외의 他物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하여 自我는 他物과의 끊임없는 交流로써 自我를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이 自我와 他物간의 교류에 따라서 우리는 이 物을 분류하고 있다.

즉 自我내에 독립된 神을 갖지 못하고 그저 외부의 변화에 따라 그냥 던져진대로 존재하는 것을 무생물이라 하고, 독립된 神을 가지고 있어 自我의 독특한 영역을 가지고 외부와 교류하는 것을 생물이라고 한다.

나아가 이 생물 중에서 神氣의 차등이 있어 그 神氣가 좀더 강한 것은 동물이 되었고 가장 강한 것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인 것이다.

사람은 이네 수십억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하는데 그 間에 生을 영위하면서 독특한 精을 만들어 대대로 유전시켜 다른 동물과는 전혀 다른 精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神氣도 더욱 강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탐이 높으면 바람을 많이 받듯이 사람의 精氣가 강하여 독특하므로 그에 따른 질병도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하튼 사람이 氣와 神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또한 이 氣와 神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心이므로 心은 더욱 중요한 要諦가 될 것이다. 그런데 心과 神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 心으로 神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지만 氣는 心의 지배만 받는 것이 아니라 外氣의 영향도 많이 받으므로 心과의 관계가 神보다는 소원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神을 다스릴 때는 心에 의존함을 원칙으로 하여야겠지만 氣를 다스릴 때는 心에도 의존하겠지만 藥物이나 鍼灸, 導引 등 갖가지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東醫寶鑑』의 篇制에서 「內景篇」의 精氣神血의 養生과 治療에 있어서는 「外形篇」의 皮筋肉骨등의 養生, 治療에서 보다 좀 더 治心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雜病篇」에서의 雜病은 「內景篇」이나 「外形篇」에서 보다 더욱 治氣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陰陽五行으로 말한다면 사물은 모두 陰陽五行의인 성질이 있지만 특히 사람에게서는 그 성질의 발현이 더욱 뚜렷하므로 잘 설명되어질 수 있다. 사람은 그 자체가 天地의 精氣를 받아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개체이므로 內에 존재하는 神은 五行의 성질이 뚜렷하다. 즉 五行이라 하면 外氣의 영향이 없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陰陽의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사람이야말로 천지간의 다른 어떤 物보다 이러한 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動物이나 식물의 질병을 치료한다면 사람보다는 더욱 氣를 다스리는 것에 힘써야겠지만 사람은 스스로 外氣의 영향을 받지 않고 陰陽運動을 할 수 있는 能力이 강하므로 스스로의 五行能力을 일깨우는 것이 더욱 긴요한 치료로 등장하는 것이다.

사람이 비록 五行의 機能이 他物보다 강하다고는 하나 五行運動의 결과는 자체만의 運動으로 완성될 수 없고 역시 外物과의 交流가 있어야 하고 交流 그 自體가 陰陽의 運動이므로 陰陽의 조절 곧 氣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陰陽과 五行의 관계는 서로 表裏의 관

계, 內外의 관계와 비슷하여 陰陽運動의 異常은 바로 五行運動의 異常을 유발하고 五行自體의 異常은 곧 陰陽運動의 異常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陰陽과 五行에 있어 그 貴賤과 輕重을 굳이 따질 수는 없으나 五行이 本 이라면 陰陽은 末이므로 人體의 양생과 치료에 있어서도 보다 本이 되는 五行 부분을 앞에 篇하였고 陰陽부분을 뒤에 篇하였다. 즉 『東醫寶鑑』은 보다 陰陽五行 思想에 근본하여 篇制를 하였고 그 思想의 중심은 陰陽五行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辨證論治의 발전과 『東醫寶鑑』의 辨證體制

辨證은 단순히 병의 증상을 분석하여 치료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숙이 왜 이러한 증상이 출현할 수 밖에 없는가? 즉 왜 이러한 병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가를 궁구하여 치료의 깊숙한 근거를 찾으려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자연히 人體의 근본 生理를 명확히 파악함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辨證施治의 훌륭한 實例가 仲景의 『傷寒論』에서 비로소 출현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초는 이미 『黃帝內經』에서 닦았다 할 것이다.

먼저 『黃帝內經』에서 辨證施治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것들을 간단히 뽑아서 언급해 보자.

##### 1. 辨證論治의 기초를 마련한 『黃帝內經』

『內經』에서 診斷을 논하면 언필칭 등장

하는 것이 바로 陰陽과 胃氣(陽氣)이다<sup>2)</sup>. 이는 바로 이 두 가지가 바로 診斷의 要諦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陰陽이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미 胃氣가 건전한 상태에서 陰勝하거나 陽勝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脈의 陰陽으로는 病이 어느 곳에 있는가만을 알아내는 것이고 胃氣의 有無는 바로 死生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즉 胃氣라는 것은 人體내의 五臟의 機能이 조화롭게 진행되고 있느냐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열쇠다. 五臟의 機能이 순조롭다는 것은 바로 체내의 五行의 순환이 순조롭다는 것인데 이 五行의 순환은 土의 바탕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五臟의 機能도 胃氣의 보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胃氣의 유무는 바로 五臟機能의 성패를 가리키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胃氣도 그냥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 五臟의 활동이 순조로울 때 保全生成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內經 素問』의 「上古天真論」, 「四氣調神大論」, 「生氣通天論」 등에서 특히 天真之氣, 生氣, 陽氣등의 保全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四時나 一日의 변화에 순응하여 陽氣를 養成할 것을 論하였다<sup>3)</sup>. 이렇게 『內經』의 머리에서 陽氣의 보전과 생성을 역설한 것은 그만큼 발병된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未病에 陽氣를 길러 豫防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한 것이다.

비록 胃氣의 유무로써 생사를 가린다고 하였고 人體의 四時에 따른 활동이 胃氣를 기르는 것이긴 하지만, 人體의 四時에 따르지 못하는 행동이 곧 생사를 가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內經』에서도 四時에 따르지 못한 행동이 부르는 병을 다음과 같이 說하고 있다. 『內經』의 『素問』 「金匱眞言論」, “겨울에 按扣를 행하지 아니하면 봄에 코피를 흘리지 않고 또 頸項을 앓지 않으며, 여름에 胸脇을 앓지 않으며, 長夏에 洞泄寒中을 앓지 않으며, 가을에 風騷을 앓지 않으며, 겨울에 痺厥을 앓지 않는다. 무릇 精이란 몸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겨울에 精을 잘 갈무리한 사람은 봄에 溫病을 앓지 아니하고 여름에 땀을 흘리지 아니한 사람은 가을에 風騷病에 걸린다”고 하였다.

이로 보면 곧 四時의 변화에 순응하여 人體 속에 精을 저장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 된다고 할 것이다. 四時의 변화에 순응한다는 것은 바로 체내에서의 五行의 변화가 순조롭게 일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五行의 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精이 生成되고 精이 生成되면 生氣, 陽氣, 胃氣가<sup>4)</sup> 모두 충만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內經』이 養生에서 四時에의 순응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五臟 五行을 어떤 기본 틀이라 한다면 陰陽이나 經絡은 그 기본 틀에서 나오는 機能, 性能, 作用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우리가 人體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은 五臟이나 五行의 역할보다는 經絡이나 陰陽의 역할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므로 辨證에 있어서도 당연히 陰陽이 五行에 우선하고 經絡이 臟腑에 우선하여

3) 『素問』 「四氣調神大論」: “春三月此謂發陳 ~ 賞而勿罰 此春氣之應 養生之道也 逆之則傷肝 夏爲寒變 奉長者小”

4) 『素問』 「陰陽應象大論」: “氣歸精 精歸化 精食氣 形食味 化生精 氣生形 氣傷精 精化爲氣 氣傷于味”

2) 『素問』 「陰陽別論」: “所謂陰者 眞臟也 見則僞敗 敗必死也 所謂陽者 胃脘之陽也 別于陽者 知病處也 別于陰者 知死生之期”

용용될 수 밖에 없다.

臟腑의 기본 틀이 내부에 구성되면 그 작용이 직접 외부에 출현하지는 못하고 經絡을 거쳐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色診을 하여 經絡의 虛實寒熱을 분별하고 脈診을 하여 臟腑의 虛實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臟腑의 虛實이든 經絡의 寒熱虛實이든 모두 그 자체의 작용이 어떠한 상태에 있나를 파악하는 것이 辨證의 요점이 되므로 요체는 陰陽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素問』의 「金匱眞言論」등에서는 내재한 臟腑의 陰陽을 논하고 「陰陽離合論」이후로 「陰陽別論」등에서는 經絡의 陰陽을 주로 논하였다. 그리고 「太陰陽明篇」、「陽明脈解」、「熱論」、「驪論」등은 곧바로 經絡의 陰陽을 질병의 진단 치료에 응용하고 있다.

『內經』에서는 臟腑나 經絡을 가리고 病을 분류한 곳도 없지 않으나, 물론 병을 나누었다는 면에서는 辨證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엄격한 의미로는 이는 辨證이라 볼 수 없다.

단지 『內經』은 오장의 기능을 원활케 하여 내적으로 眞氣는 잘 보전하여 胃氣、陽氣를 생성케하고 외적으로는 陰陽을 잘 조절하여 經絡의 순행이 원활하여 氣血의 生成이 질병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단 疾病이 발생하면 臟腑와 經絡의 활동이 어떠한가를 陰陽論으로 관찰하여 진단·치료 한다는 것이다.

## 2. 辨證論治의 活用과 仲景『傷寒論』

『內經』에서는 陰陽으로 인체의 모든 기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성공적이 못하였다. 즉 陰陽으로 모든 인체의 기능을 표현하려고 그 정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 즉 五臟이나 六腑 및 經絡의 각

각의 기능을 말하고 덧붙여 陰陽을 말하고 있으므로 쉽게 陰陽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仲景의 『傷寒論』에서는 臟腑나 經絡을 무시하고 오로지 陰陽 즉 三陰三陽으로 人體의 기능을 나누어 설명하고 病도 또한 三陰三陽으로 분류하여 매우 간단 명료하게 되었다. 臟腑나 經絡을 무시하여 버렸으므로 精氣、元氣、衛氣、營血이니 하는 등의 복잡한 생리용어가 그리 필요치 않게 되고 단지 陰陽이나 陽氣、津液 등의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대치하고 있다. 또한 臟腑나 經絡이란 용어보다는 보다 간편한 表裏 內外등이 쓰이고 있다.

즉 臟과 腑에서는 臟은 陰으로 腑는 陽으로 보지만 臟腑와 經絡에서는 臟과 腑는 모두 陰이고 經絡은 陽이고, 또한 經絡에서 陰經과 陽經이 나뉘어 질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 인체의 장기와 조직을 간단하게 陰陽으로 나누고 그 안에 포함시켜 인체를 營衛하는 營衛物들도 陰陽으로 정리하였다. 즉 血은 陰이요 氣는 陽이요, 血에서 臟에 있거나 內에 있는 血은 陰이요 表나 經絡에 있는 血은 陽이요, 氣도 精氣는 陰이요 經氣나 衛氣는 陽이다. 또한 津液에 있어서도 소변은 陰이요 汗은 陽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속에 간직하고 간단하게 三陰三陽으로 인체의 生理를 나누어 놓았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즉 식물에게 잎이 있어 호흡을 하고 동화작용을 하는데 특히 식물잎의 호흡작용과 같은 작용을 하는 기능을 우리 인체에서는 太陽이라고 보았으며, 식물의 등화작용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인체의 기능을 陽明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太陽은 氣의 소비처이고 陽明은 氣의 생산지이다.

그러므로 太陽은 그 작용을 일시도 멈출

수 없다. 그러하므로 바로 外氣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陽明은 생산자이므로 外氣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철이 따로 있지만,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일은 우리가 하루도 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면 少陽은 무엇인가? 바로 이는 氣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즉 서비스업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病이 걸리면 惡寒發熱의 裏症과 表症이 동시에 나타날 수 밖에 없다.

三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三陽이 주로 氣의 생성과 소모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라면 三陰은 이에 반하여 精血의 생성과 소모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太陽에 병이 발생하였다면 그 문이 아주 닫혀서 氣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문이 열려 버렸는지? 를 구분하고 陽明이라면 생산이 過剩한지 不振한지 등을 따져서 辨證을 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것들은 陰陽으로 총괄되는 寒熱, 表裏, 虛實등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仲景의 『傷寒論』이라 할 것이다.

### 3. 五行에서 陰陽변화의 근원을 탐구

仲景의 『傷寒論』에서 인체의 기능을 陰陽으로 파악하고 질병의 근본 원인을 陰陽의 부조화에 두어 치료의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 놓았다. 이에 실제 임상에서의 응용이 간편하게 되어 질병의 치료에 널리 활용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陰陽의 부조화를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는 그 설명이 부족하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宋代에 『傷寒論』에 대한 연구가 宋代의 理學의 영향을 받아 널리 이루어지면서 朱肱의 經絡辨證 및 許叔微의 八綱辨證이 나와 辨證에 있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 졌고 『內經』과 『中臟經』을 바탕으로 한 錢乙의 五臟辨證이 등장하여 辨證에 있어 상당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陰陽不調和의 근본 원인에 대한 탐구가 숙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劉河間을 필두로 질병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內經』의 연구가 새롭게 진행되면서 火熱을 病의 실체로 인식하였다.

이에 火熱의 발생에 있어서 外邪와 六淫이 유발 원인으로 인정되어 張從政이 汗吐下三法の 주장이 나왔지만 外邪의 침입은 正氣의 허약이 또 그 근본 원인이므로 결국 내재 臟腑의 부조화가 병의 근본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러하여 東垣은 脾土의 쇠약이 陽氣를 쇠약하게 하고 陽氣가 쇠약하면 陰火를 발생시켜 질병이 생긴다고 하였으며 丹溪는 腎水의 부족이 相火를 妄動케 하여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논리의 발전은 陰陽의 부조화가 인체 내의 臟器의 기능의 偏盛偏衰에서 오는 것이며 이러한 臟器기능의 원상 회복을 위하여 補土를 한다던지 滋陰을 해야 한다는 처방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병리의 분석이 陰陽에서 그치지 않고 臟腑로 들어가자 五行의 조화가 역시 중요한 관건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四大家의 의학에서는 『傷寒論』에서보다 더 양생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河間이나 丹溪등은 相火의 망동

원인을 바로 七情이나 酒色에서 구하였으며 東垣도 土氣의 쇠약을 음식과 노역에서 찾아내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병의 원인을 밖에서 찾아내던 풍토를 바꾸어 인간 스스로가 병의 원인임을 자인하는 격조 높은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4. 陰陽五行을 통합한 『東醫寶鑑』의 辨證體制

仲景 『傷寒論』이 生理와 病理를 陰陽으로 묶어 버리자 生理, 病理의 개념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으나 사과의 국한성이 경직성을 면키 어려운 바가 없지 않다. 이에 宋醫家와 金元 四大家에서의 『傷寒論』의 새로운 연구와 『內經』 사상의 확대 해석은 生理와 病理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辨證에 있어서도 그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었다.

즉 東垣의 『脾胃論』은 인체의 精氣가 脾胃의 養을 받아 생성된다는 이론과 丹溪가 주장한 肝腎 相火論이 精과 氣血의 상호 생성함을 밝힘으로써 精氣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동시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丹溪의 滋陰說이나 東垣의 脾胃之氣의 昇降論은 五臟氣의 상호교제의 이해를 돕게 되었다. 또한 命門 三焦에 대한 이해가 相火論이나 脾胃의 昇降論과 함께 깊어짐으로 五臟六腑에 국한되었던 臟腑의 기능도 더욱 그 폭이 넓어졌다.

결국 이러한 臟腑개념의 확대는 『傷寒論』의 陰陽개념을 체표나 經絡에 국한시키지 않고 안체 전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東醫寶鑑』은 당시의 중국 의학을 주도하던 金元醫學을 도입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그 선택의 여지가 넓고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에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체를 陰陽五行의 관점으로 보아 精氣神血, 五臟六腑, 筋骨皮脈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역대의 모든 학설도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취사할 수 있었다. 즉 『內景篇』에서 醫家說이 아닌 道家學說을 대량으로 도입하여 놓은 것이다. 中風論에서 역대 醫家說을 부담 없이 다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즉 어찌 보면 『東醫寶鑑』의 著者인 許浚 선생이 당시의 학설이나 주장은 없이 여러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처럼 보이거나 사실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陰陽五行의 관점으로 너무나 뚜렷이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학설이나 처방, 치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許浚 선생이 『東醫寶鑑』의 集例에서 스스로 東醫學을 주장하였듯이 『東醫寶鑑』의 이러한 사상은 줄곧 한국 의학의 주종을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陰陽五行을 근간으로 하여 어느 유과에도 치우치지 않는 의학을 발전시키려면 『內經』을 필두로 한 고전의 연구와 陰陽五行에 대한 보다 깊고 새로운 연구야말로 우리의 동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첩경이다.

## 5. 結 論

證이 비록 病症을 바탕하여 성립되는 것이긴 하지만 辨證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生理에 두고 있고 그 生理의 정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陰陽이므로 陰陽이 辨證의 기본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陰陽이 사물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라면 陰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五行에 있으므로 五行도 辨證에 있어 버릴 수 없는 요소라 할 것이다.

우리 東醫學은 그러므로 陰陽과 五行을 바탕으로 하여 각각 특색 있게 그 辨證이 발전되어 왔으나 『東醫寶鑑』에서는 陰陽五行을 동시에 바탕으로 하여 그 辨證體制를 만들었다.

즉 『傷寒論』을 필두로 하여 발달한 陰陽 辨證體制에 四大家가 연구 발전시킨 五行 辨證체제를 통합시켜 완전한 辨證체제를 완성하고 있다.

즉 이미 그 篇制가 內外 本末로 陰陽五行의 관점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바탕 위에 역대의 모든 辨證體制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東醫寶鑑』은 東醫學을 성립시켰을 뿐아니라 東醫醫學의 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